

【논 문】

중국 동북지역의 전형단위제와 ‘창판대집체기업(廠辦大集體企業)*’

박 철 현**

┃ 차 례 ┃

- I. 서론
- II. 동북지역과 전형단위제
- III. 주판기업의 전형단위제와 창판대집체기업
- IV.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는 창판대집체기업(廠辦大集體企業)의 형성, 창판대집체기업과 국유기업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사회주의 시기 중국 동북지역 도시사회의 주요 구성요소인 창판대집체기업의 정치적 사회적 의미를 알아본다. 만주국 시기부터 공업화의 기초가 축적된 동북지역은 건국 이후에도 ‘156개 중점건설항목’과 집중적인 중공업 투자로 중국을 대표하는 중공업기지가 된다. 이러한 공업화와 함께 사회주의 시기 내내 전국평균을 2배 이상 상회하는 도시화율은 동북지역에 전형단위제가 형성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되었다. 창판대집체기업은 다른 집체기업과는 달리, 기존 국유기업이 설립한 집체기업이며, 그 설립목적은 국유기업 소속 노동자의 자녀와 도시로 돌아온 지식청년의 안정적 취업을 보장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창판대집체기업의 형성과 국유기업과의 관계는 전형단위제 국유기업의 특징을 뚜렷이 보여준다. 특히 동북지역에 소재하는 중앙기업(中央企業)이 설립한 창판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9-362-B00011).

**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HK연구교수.

대집체기업은 동북지역 기업의 정치적 사회적 의미를 보여준다. 창판대집체 기업에 대한 분석은 개혁기 동북현상, 신동북현상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는 물론, 사회주의 시기 동북지역 도시사회를 보다 풍부하고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주제어: 창판대집체기업, 국유기업, 집체기업, 전형단위제, 동북지역, 도시사회

I. 서론

2005년 11월6일 중국 국무원은 재정부(財政部),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國有資產監督管理委員會), 노동과사회보장부(勞動和社會保障部)가 요청한 「동북지역 창판대집체 개혁시험장소 공작 지도의견(東北地區廠辦大集體改革試點工作指導意見)」을 비준함으로써 이들 부위(部委)가 동북지역에 시험장소(試點)를 설치하여 ‘창판대집체(廠辦大集體)’ 개혁공작을 추진할 것을 허락했고, 2011년 4월18일에는 「전국범위에서 창판대집체 개혁공작을 전개하는 것에 관한 국무원 판공청 지도의견(國務院辦公廳關於在全國範圍內開展廠辦大集體改革工作的指導意見)」을 발표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 국무원 부위, 직속기관 등이 창판대집체 개혁을 전국범위에서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¹⁾

위 발표에서 국무원은 창판대집체가 모호한 소유권 관계, 경직된 체제, 과잉 인원, 약화된 시장경쟁력 등의 원인으로 조업중지 및 노동자 실업의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들 기업에 대한 과감한 개혁을 요구한 것이다. 2006년 비준은 우선적으로 동북지역 도시들에 시험장소를 설치하여 개혁실험을 할 것을 허용한 것이고, 그 성과 위에 2011년 ‘지도의견’은 전국적인 범위에서 개혁을 진행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두 가지다. 첫째, 창판대집체가 도대체 무엇이

1) http://www.gov.cn/gongbao/content/2006/content_151581.htm (검색일: 2018년 5월3일);
http://www.gov.cn/zwjk/2011-04/22/content_1850461.htm (검색일: 2018년 5월3일)

며, 국유기업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문제점에 처해있는가? 둘째, 베이징, 상하이, 광둥 등 다른 지역이 아니라, 동북지역 도시들에 시험장소를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창판대집체는 ‘창판대집체기업(廠辦大集體企業)’의 약칭인데, 여기서 ‘창(廠)’은 공장을 가리킨다. 따라서 창판대집체기업은 국유기업(=창)이 설립한 집체기업이며, 주로 대형인 경우가 많아서 대(大)집체기업이라고 한다.²⁾ 창판대집체기업은 중국이 1970년대, 1980년대 농촌으로 하방(下放) 되었다가 도시로 돌아온 ‘지식청년(知識青年)’이나 소속 노동자의 자녀의 안정적 취업과 정착을 목적으로 국유기업이 설립한 기업이다. 주목할 점은, 국무원 싱크탱크인 ‘국무원 발전연구중심(國務院發展研究中心)’의 통계에 따르면, 창판대집체기업의 60%가 동북지역에 집중되어있고, 창판대집체기업을 설립한 국유기업인 ‘주관기업(主辦企業)’의 상당수는 이른바 ‘중앙기업(中央企業)’이라는 사실이다.³⁾ 바로 이 점에서 중국의 대표적 노후공업기지로서 1990년대 중후반 이후 지금까지 발생한 ‘동북현상(東北現象)’, ‘신(新)동북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국유기업 개혁이 진행되어오고 있는 동북지역에 있어서, 창판대집체기업은 국유기업과 긴밀한 관련을 가지는 실체로서 동북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의 문제를 연구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⁴⁾

2) 창판대집체기업보다 소규모의 낮은 ‘지위’를 가진 집체기업은 ‘창판이(二)집체기업’이라고 한다.

3) 중앙기업은 중국 중앙정부인 국무원(國務院)의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國有資產監督管理委員會)가 직접 감독관리하는 국유기업을 가리킨다. 이에 대해 지방기업(地方企業)은 중앙정부가 아닌 각급 지방정부의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가 감독관리하는 국유기업을 가리킨다. 중앙기업은 수도인 베이징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산재해있다.

<http://www.drc.gov.cn/xscg/20160921/182-473-2891681.htm> (검색일: 2018년 5월3일)

4) 동북현상은 시장화 개혁이 심화되던 1990년대 중후반 동북지역의 국유기업들이 시장경제에 적응하지 못하고 경쟁력이 약화되어, 기업도산, 노동자 해고, 파업 등이 잇달아 발생하여 이 지역 사회와 경제가 크게 침체한 현상을 가리킨다. 신동북현상은 기존 동북현상이 일정하게 해결되었다는 전제 위에 최근 몇 년 사이 동북지역에서 발생한 지역 GDP증가율 감소, 인구감소 등의 현상을 가리킨다. ‘동북현상’과 ‘신동북현상’ 등의 진단이 가진 문제점에 대해 비판적 시각으로, 기존 시장주의, 자원형 도시, 노후공업기지, 전형단위제를 검토하고 있는 연구는 다음을 참고: 박철현, 2016, 『중국 동북지역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

앞서 언급한 발표에서 국무원이 창관대집체기업을 경제의 관점에서 단지 개혁과 변화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과 달리, 본 연구는 기업의 문제를 단지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사회의 문제로 본다. 즉 사회주의 시기 중국에서 기업은 단지 생산을 위한 경제조직이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조직이었다는 점을 중시하여, 1970년대, 1980년대 설립된 창관대집체기업의 각종 문제를 도시의 정치적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동북지역 도시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북지역에 존재했던 중대형 국유기업 뿐만이 아니라 이들 국유기업이 설립한 창관대집체기업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전형단위제(典型單位制)’를 매개로 창관대집체기업의 형성 및 주관기업과 창관대집체기업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⁵⁾

전형단위제는 사회주의 시기 동북 도시사회에서 형성된 독특한 단위체제(單位體制)를 가리키는 것으로 당시 동북지역에 존재했던 국유기업들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분석틀이다. 전형단위제는 동북지역에서 1980년대 시장화 개혁의 과정에서도 온존되어 있다가 2000년대 초반 국유기업 개혁의 과정에서 약화되었으나, 최근까지 여전히 그 유산이 강하게 남아있다.⁶⁾ 중요한 것은 기존 국유기업만이 아니라, 본 연구의 대상인 창관대집체기업의 형성과 주관기업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전형단위제는 매우 유효한 분석틀이라는 점이다.⁷⁾

창관대집체기업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중국에서는 개혁기 드러난 경제적 비효율과 낙후의 관점에서 창관대집체기업을 개조와 변화의 대상 정

‘노후공업도시’, 『역사비평』 116호.

- 5) 사회주의 시기 중국에서 기업은 단지 생산을 위한 경제조직이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조직이었고, 당시 중국 사회는 ‘단위가 사회를 담당(單位辦社會)’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의 핵심 구성요소였기 때문에, 당시 도시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위에 대한 분석이 관건적이다. 단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2장을 참고.
- 6) 동북지역은 전형단위제의 유산으로 기존 단위를 대체하는 사구(社區) 건설에 큰 제약이 있다고 평가된다. 다음을 참고: 徐雪梅, 2008, 『老工業基地改造中的社區建設研究: 以遼寧爲個案』,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43~145쪽.
- 7) 전형단위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연구의 3장 및 다음을 참고: 田毅鵬 等著, 2011, 『“單位共同體”的變遷與城市社區建設』, 中央編譯出版社, 155~159쪽.

도로만 취급하는 경향이 강하다.⁸⁾ 이 연구들은 기본적으로 창판대집체기업을 경제적 실체로만 간주할 뿐, 사회적 정치적 실체로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창판대집체기업이 국유기업과 함께 사회주의 시기 동북지역 도시사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의미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고, 단지 개혁기 들어서 창판대집체기업이 발생시킨 경제적 문제점만을 지적하고 있을 뿐이다. 지린 대학 텐이펑(田毅鵬) 교수는 단위 관련 연구에서, '특수한 역사시기' 형성된 창판대집체기업을 일부 다루고 있으나, 사회주의 시기 동북지역 도시사회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 위치지우고 그 의미를 분석한다기보다는, 개혁기 사구(社區)건설을 위한 개혁과 변화의 대상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점에서 기존 중국 측 연구와 유사하다.⁹⁾ 국내에서도 집체기업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있으나, 주로 경제적 관점에서 개혁기 '집체향진기업(集體鄉鎮企業)'의 효율성, 소유권 개혁, 지역별 모델 등에 주목한 연구가 다수이고, 사회주의 시기 동북지역 도시의 창판대집체기업에 관한 연구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창판대집체기업은 생산이 아니라 지식청년과 노동자 자녀의 취업을 위해서 국유기업이 설립한 기업인만큼 그 경제적 의미보다는 사회적 정치적 의미에 주목하여, 창판대집체기업을 당시 동북지역 도시사회의 주요 구성요소 중 하나로서 위치지우고, 창판대집체기업의 형성과 국유기업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분석함으로써, 사회주의 시기 중국 동북지역의 도시사회를 좀 더 풍부하고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서론에 이어서 2장에서는 사회주의 시

8)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徐永前 主編, 2011, 『廠辦大集體改革100問』, 法律出版社; 李輝 王秀艶, 2009, 『國有廠辦大集體改制面臨的法律問題及對策』, 『黑龍江教育學院學報』 10期; 尙純穎, 2012, 『廠辦大集體困境及發展出路』, 『現代商業』 18期; 張雁飛, 2013, 『關於電網企業廠辦大集體改革的路徑探討』, 『中國集體經濟』 4期; 顏休嘉, 2013, 『廠辦大集體改革背景下集體企業發展戰略分析: 以電網公司爲例』, 『中國集體經濟』 18期; 李瑞慶 藍國青, 2016, 『廠辦大集體改革創新實踐』, 『中國電力企業管理』 10期.

9) 사구는 개혁기 기존 단위체제를 대체하여 등장한 사회관리(社會管理) 체제이다. 보다 자세한 연구는 다음을 참고: 박철현, 2014, 『중국 사구모델의 비교분석: 상하이와 선양의 사례 - 사회정치적 조건과 국가 기획을 중심으로』, 『중국학연구』 69집; 박철현, 2015, 『중국 개혁기 사회관리체제 구축과 지방정부의 역할 변화: 1990년대 상하이 푸둥개발의 공간생산과 지식』, 『공간과사회』 52권 2호.

기 동북지역 도시사회의 특징을, 중공업화와 도시화를 중심으로 알아본 후, 본 연구의 키워드 중 하나인 전형단위제를 통해 동북지역 국유기업의 특징을 밝힌다. 3장에서는 주판기업(=국유기업)과 창판대집체기업을 다룬다. 먼저 집체기업의 형성의 역사를 살펴보고 설립계기와 목적에 따라 분류한다. 다음으로 안산강철(鞍山鋼鐵), 다렌기차차량창(大連機車車輛廠), ‘창춘 제1자동차회사(長春一汽車)’의 사례를 통해 ‘57가속공장(家屬廠)’과의 차이, 주판기업과 창판대집체기업의 관계, 중앙기업의 문제 등을 분석함으로써 창판대집체기업의 실체를 밝힌다.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을 정리한 후 사회주의 시기 동북지역 도시사회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존과 같은 국유기업에 대한 연구는 물론, 창판대집체기업 같은 기존 국유기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기업에 대한 연구, 그리고 대학, 연구소, 협회 등과 같은 사업단위(事業單位)에 대한 분석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II. 동북지역과 전형단위제

1. 동북지역의 중공업화와 도시화

사회주의 시기 중국 도시사회는 ‘단위(單位)’로 구성되어있었다. 단위는 공산당, 정부, 군대 등 국가기관 단위, 국유기업 집체기업 등의 기업단위, 대학, 연구소, 협회 등의 사업단위로 나뉜다.¹⁰⁾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

10) 단위의 기원에 관해서는 몇 가지 설이 있다. 우선 공산당이 혁명투쟁을 위한 ‘근거지(根據地)’ 시기 각종 물자가 부족하여 시장을 통한 구매가 아니라 기업, 군대, 협회, 학교 등 다양한 조직을 통해서 배분하는 공급제(供給制)에 있다고 보는 ‘근거지’ 설이 있다.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을 참고: 路風, 2003, 『中國單位體制的起源和形成』, 中國社會科學院社會學研究所編, 『中國社會學』第2卷, 上海人民出版社, 94쪽; 또한, ‘혁명 이후 사회의 통합과 연결(聯結)’설은, 혁명 이후 자원의 절대적 부족이라는 조건 속에서 국가가 기존에 자원의 분배기능을 담당하던 시장이나 행회(行會: 동업조합)의 역할을 최소화시키고 도시를 단위체제로 재편한 후, 단위를 통해서 자원을 인민에게 분배하면서 동시에 인민에 대한 정치적 지배를 실현시켰다는 주장이다.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을 참고: 劉建軍, 『單位中國: 社會調控體系重構中的個人, 組織與國家』, 天津人民出版社; 아울러 ‘민국시기 기원’설은 단

는 것은 기업단위이다. 기업은 그 내부에 설치된 공산당 조직을 통해서 소속 노동자를 정치적으로 동원, 관리하였고, 노동자는 기업을 통해서 식량은 물론이고 주택, 교육, 문화, 의료 등 사회경제적 복지를 제공받았다. 사회주의 시기에는 노동자가 생활에 필요한 식량과 복지를 화폐를 통해 구매할 수 있는 시장이 거의 발달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는 단위를 통해서 소속 노동자에게 식량과 복지를 배분하였고, 노동자는 생활을 위해서 단위에 의존하고 단위는 국가에 의존하는 한편, 국가는 단위를 통해서 개별 인민을 정치적으로 지배하는 구조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중국 도시에서 이러한 ‘단위체제(單位體制)’가 본격 ‘형성’되는 것은 사회주의 중공업화가 시작되는 ‘제1차 5년 계획(1953~57)’ 기간이지만, 단위체제가 ‘탄생’하는 것은 그 이전인 1948~56년 시기 동북지역에서였다. 중국공산당은 1946년 4월 하얼빈(哈爾濱)을 최초로 동북지역의 도시들을 차례로 “해방(解放)”했고, 마침내 1948년 10월 창춘(長春), 11월 선양(瀋陽)을 각각 해방함으로써, 동북지역 주요 도시를 모두 장악하게 된다. 이후 공산당은 동북지역 도시를 ‘접관(接管: 접수와 관리)’하면서 사회의 곳곳에 당조직을 설치하였고, 이 접관과정에서 형성된 국가-기업-노동자 관계와 권력 및 자원의 배분과 행사의 메커니즘은 건국 초기 제1차 5년 계획 시기 본격적인 단위체제 형성의 밑거름이 된다고 할 수 있다.¹¹⁾ 즉 동북지역 접관과정에서 단위체제의 맹아들이 출현했고, 제1차 5년 계획 기간 사회주의 중공업화를 거치면서 전국적인 범위에서 단위체제가 본격적으로 형성된 것이다.¹²⁾

위체제의 ‘근거지’설이나 ‘소련모델 이식’설 등을 지나친 단순화라고 비판한 후, 민국시기 중국 국영기업체제에 주목하여 그 특징을 ‘관료거버넌스 구조’, ‘독특한 관리 및 인센티브 기제’, ‘기업 내부에서 제공되는 사회적 서비스와 복지’로 개괄하고, 이러한 특징이 중일전쟁 시기 병기(兵器)공업 및 중공업 분야 국영기업에서 출현한 점에 주목하여, 혁명 후 단위체제가 민국시기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고 주장한다. 대표적 연구로는 다음을 참고: 卞歷南, 2011, 『制度變遷的邏輯: 中國現代國營企業制度之形成』, 浙江大學出版社.

11) 물론 공산당은 항일전쟁 시기에도 일정기간 연안(延安)을 비롯한 몇몇 근거지를 장악하기는 했지만, 일정규모 이상의 도시를 접수하고 행정체제와 기업을 관리하고, 이를 통해 국가-기업-노동자 관계와 권력 및 자원의 배분과 행사의 메커니즘을 구축할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상 동북지역이 최초라고 할 수 있다.

12) 단위체제의 맹아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정부(市政府) 이하 층위에서, 시정부와 ‘단위’들

이러한 단위체제 맹아 출현의 중요한 조건은 바로 공업화와 도시화였다. 동북지역은 만주국 시기(1932~45)의 공업화에 의해 이미 근대적 공업기초를 갖추고 있었고, 건국 이후 제1차 5년 계획 시기 소련이 지원한 대형 중공업 건설프로젝트인 ‘156개 중점건설항목(重點建設項目)’ 중 50개가 배정된다.¹³⁾ ‘제2차 5년 계획(1958~62)’ 기간에도 동북지역의 대표적 중공업기지인 선양 시 테시구(鐵西區)에만 전국 중점공업기지 건설 예산의 1/6이 투입될 정도였다.¹⁴⁾ 이렇게 산업구조의 중공업화가 가속화되면서, 동북지역은 도시화율도 점차 높아진다. 동북지역 도시화율은 1949년 22.7%로 당시 전국 평균 도시화율 10.64%의 2배 이상이었고, 제1차 5년 계획 마지막 해인 1957년 36.69%에 달하여 역시 당시 전국 평균 도시화율 15.39%의 2배를 훨씬 상회했다.¹⁵⁾ 개혁개방 직전인 1977년 동북지역 도시화율은 35.74%에 달했지만 1978년 전국 평균 도시화율은 17.9%에 불과해, 동북지역은 여전히 전국 평균의 2배에 달했다.¹⁶⁾ 이처럼 동북지역은 건국 이전 마련된 공업화 기초를 토대로, 1950년대 제1차 5년 계획 기간의 중공업화를 거치면서, 중국을 대표하는 중공업기지가 되었을 뿐 아니라, 중공업화의 진행과 함께 도시화율도 사회주의 시기 내내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이렇게 사회주의 시기 내내 전국 평균을 2배 이상 상회했던 높은 도시화율은, 건국 초기 동북지역이 관내(關內)지역에 비해서 인구밀도가 상대적으

(학교, 공장, 협회, 단체 등이 ‘수평적’으로 연결될 뿐 상호 행정적 직접적 위계에 있지 않으며, 단위들은 해당 부문의 상급조직과 수직적으로 연결되는 관계, 둘째 단위가 소속 노동자의 복지를 전면적으로 담당하는 단위복지제도, 셋째 단위 내부에 설치된 당조직을 통한 소속 노동자의 정치적 동원.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 田毅鵬 漆思, 2005, 『“單位社會”的終結: 東北老工業基地“典型單位制”背景下的社區建設』, 社會科學文獻出版社, 38~41쪽.

- 13) 1950~69년 기간 소련이 중국에 자금, 기술, 전문가를 지원한 156개 중점건설항목은 특히 제1차 5년 계획 기간에 집중되었다. 156개 항목 중 실제 건설완료된 것은 150개였다. 156개 중점건설항목의 전반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董志凱 吳江, 2004, 『新中國工業的奠基石: “156項”建設研究』, 廣東經濟出版社.
- 14) 李翔, 2009, 『共和國記憶60年: 成長地標』, 中信出版社, 43-46쪽.
- 15) 姜妮倫, 2009, 『東北地區城市化問題研究』, 『東北財經大學學報』 3期, 46쪽.
- 16)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 路遇 編, 2016, 『新中國人口五十年 上』, 中國社會科學出版社, 471~486쪽.

로 낮은 상태에서, 1950년대부터 시작된 중공업화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 동북지역 도시로 노동자를 포함하여 많은 인구가 유입된 것이 결정적인 이유이다. 이를 시기 별로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¹⁷⁾ 첫째, 1948~57년 시기로 이때 동북지역은 관내지역의 국공내전(國共內戰)을 지원하기 위한 ‘후방기지’였고, 이후 1950년 한국전쟁 발발과 곧 이은 중국의 참전으로 동북지역은 또다시 전쟁지원 기지가 되었으며, 앞서 언급한 제1차 5년 계획 기간 중공업 건설이 집중되었다. 이러한 전쟁지원과 중공업건설 과정에서 관내지역으로부터 동북지역 도시로 많은 인구가 이동하였다. 둘째, 1958~62년 시기로 이때는 대약진에 의한 농촌인구의 대규모 도시이주, 대약진 종료 후 도시인구의 대규모 농촌회귀, 헤이룽장성(黑龍江省)의 다칭(大慶) 유전 개발 등에 의한 대규모 도시인구 증가가 있었다. 이 시기 도시화율은 기복이 심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전 시기와 비슷했다. 셋째, 1963~80년 시기로 이때는 대약진이 초래한 심각한 경제적 타격으로부터 회복되는 시기였고 동시에 이미 1958년 시행되었던 도농분리의 호구제도(戶口制度)가 정착되어 대규모 도시인구 증가가 없었다. 오히려 삼선건설(三線建設), 상산하향(上山下鄉) 운동, 문화대혁명 등에 의해서 도시인구 중 일부가 농촌 및 오지로 이주했는데, 중공업이 발달한 동북지역의 도시에서는 삼선건설을 계기로 쓰촨(四川), 윈난(雲南) 등의 편벽한 지역으로 공장과 노동자가 통제로 이주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대다수의 경우 동북지역 내부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데 그쳤고, 그 수도 많지 않았다.¹⁸⁾

이상과 같이 동북지역은 건국 이전 만주국 시기 이미 기초가 마련된 공업화, 제1차 5년 계획 기간 집중된 156개 중점건설항목, 뒤이은 제2차 5년

17) 다음 내용은 이하 연구를 참고: 于瀟, 2006, 『建國以來東北地區人口遷移與區域經濟發展分析』, 『人口學刊』 3期, 29~32쪽.

18) 상산하향 운동은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도시 청년들이 농촌과 산촌으로 내려가서 정주하며 농업과 목축업 등 생산노동에 종사하도록 하는 운동으로, 1956년 1월 최초로 시행되었다. 상산하향 운동은, 도시의 취업문제 해결 및 마오쩌둥의 수정주의 이데올로기 저지가 그 발생원인으로 설명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 潘鳴嘯, 2005, 『上山下鄉運動再評價』, 『社會學研究』 5期.

계획 기간의 집중적 중공업 투자를 통해 전국 최대의 중공업 기지가 되었고, 이에 따라 도시화율도 전국 최고를 보였다. 앞서 언급한 공산당이 전국 최초로 장악한 동북지역에서 나타난 단위체제의 맹아는 이러한 중공업에 기반한 높은 수준의 도시화와 결합하여 동북 도시사회에서 독특한 형태의 단위체제, 즉 전형단위제로 나타난다.

2. 전형단위제의 문제

필자는 몇몇 연구를 통해서 전형단위제 개념을 소개하고 전형단위제를 이용하여 ‘다렌기차차량창(大連機車車輛廠)’의 사례를 분석하였다.¹⁹⁾ 우선 전형단위제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전형단위제는 기존 단위체제의 구성요소들이 강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동북지역이 대표적인 지역이다. 1절에서 보았듯이 동북지역은 중국의 다른 지역보다도 이른 시기에 중공업화와 도시화가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었고, ‘근거지’라는 농촌기반의 게릴라 전쟁 경험만을 가진 중국공산당은 동북지역에서 최초로 도시를 “해방”시키고 행정체제와 기업을 운용 관리한 경험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곳에서 형성된 국가-기업-노동자 관계와 권력 및 자원의 배분과 행사의 메커니즘은 1949년 건국 이후 전국적인 범위로 확대 적용되었다. 이렇게 볼 때, 전형단위제는 높은 수준의 도시화와 중공업화가 이뤄진 동북지역에서 진행된 공산당의 “도시사회재구성(重建城市社會)” 기획의 실현과정에서 출현한 것이다. 따라서 동북지역은 공산당의 도시사회재구성 기획에서 일종의 “최초”이자 “전범(典範)”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공간이 된다.²⁰⁾

둘째, 전형단위제 특징을 가진 기업단위는 주로 기존 도시의 교외의 광대한 부지에 공장과 노동자 주택 및 관련 부대시설을 조밀하게 배치했고, 부

19) 박철현, 2015, 「사회주의 시기 중국 동북지역의 국가와 기업: 대런기차차량창의 전형단위제를 중심으로」, 『만주연구』 제20집.

20) 이하 전형단위제의 특징은 다음을 참고: 田毅鵬 漆思, 2005, 52~62쪽.

대시설은 학교, 식당, 영화관, 병원, 우체국, 유치원 등 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을 망라하고 있었다. 즉 ‘단위가 사회를 담당(單位辦社會)’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속 노동자는 직장과 생활공간이 거의 일치하는 기업 내부에서 일생을 영위할 수 있었다.

셋째, 이러한 물리적 공간특징을 가진 전형단위제 기업은 사회적 공간(social space)이란 측면에서도 매우 폐쇄적 배타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우선 공산당은 “생산과 건설의 노동자 도시”를 건설한다는 사회주의 도시관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시 노동자에게 기본적인 생활조건을 보장해야 했고,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도시 중공업 건설에 최우선적으로 투자하는 발전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호구제도를 이용하여 농촌인구의 도시유입을 차단했다.²¹⁾ 따라서 대약진과 같은 특수한 시기를 제외하고 농민의 자유로운 도시이주는 금지되었고, 도시는 온전히 각종 단위 소속 시민의 공간이 되었다. 또한 단위들 사이에서도 인구가동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이것은 사회주의 시기 중국 도시는 만성적 실업상태에 있었고, 기업 내부 일자리는 거의 충원되어있었는데, 혹시라도 공석이 발생하면 그것은 기업 ‘내부’ 인원에 의해서 충원되었고 기업 ‘외부’의 노동시장에서 공개적으로 노동력을 구매하거나 다른 기업에서 옮겨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업 내부에서도 부문 간의 인원이동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강한 폐쇄성과 배타성이 형성된 것은, 앞서 언급한 물리적 공간의 특징과 함께 당시 단위체제에서 사회경제적 복지가 영역별, 등급별로 상호 다른 품질과 수량으로 제공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일한 도시의 기업단위 소속 노동자라고 해도, 국유기업과 집체기업, 중앙기업과 지방기업, 중대형 기업과 소형 기업, 중공업 기업과 경공업 기업이라는 구분에 따라, 상호 다른 복지가 배타적으로 제공되었던 것이다. 도농 간은 물론, 중국 도시에는 단위들 사이에, 그리고 단위 내부의 부문들 사이에도 엄격한 구분과 차이가 존재했고, 같은

21) 중공업 발전전략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배리노턴 저, 이정구 전용복 역, 2010, 『중국 경제: 시장으로의 이행과 성장』, 서울경제경영, 73~78쪽.

도시, 단위, 부문에 속하는 노동자들 사이에는 강한 동질성에 기반한 독특한 정체성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노동자들 정체성에 있어서 단위 정체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넷째, 물리적 공간과 사회적 공간으로서의 성격에 기초하여, 전형단위제 기업은 하나의 ‘행정구역(行政區域)’으로서 기능하고 있었다. 우선 이들 기업은 물리적으로 도시의 교외에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도시정부의 기존 관할 행정구역에서 벗어나 있었다. 또한 이들 기업 중 특히 중앙기업은 지방에 소재하고 있지만 수도 베이징의 관련 부위에 직속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공산당위원회나 도시정부와 ‘수평적 협조관계’만 있을 뿐, ‘수직적 지휘관계’가 없다. 필자가 분석한 다렌기차차량창은 애초 19세기말 러시아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차 제작공장인데, 1949년 건국 이후 중국 국무원 철도부(鐵道部)에 소속된 중앙기업이 되었다. 따라서 이 기업은 다렌이라는 지방에 소재하지만, 다렌시 공산당위원회나 시정부와는 수직적 지휘관계가 없고, 베이징 중앙정부 철도부에 직속되어 철도부 공산당위원회의 지휘를 받는다. 아울러 중앙기업은 주로 중공업 부문 중대형 국유기업인 경우가 많아서 대규모 노동자를 거느리고 있으며, 동원 가능한 물질적 자원과 인적 사회적 네트워크라는 측면에서도 종종 해당 도시정부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자원의 범위에는 앞서 언급한 사회경제적 복지에 해당되는 학교, 식당, 영화관, 병원, 우체국, 유치원은 물론, 부대시설로서 은행, 기술학교, 주유소, 발전소, 파출소, 기차역까지 포함된 경우도 있었다.

지방소재 중앙기업의 이러한 특징은 1961년 다렌기차차량창의 ‘정치부(政治部)’ 설립과 운영과정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²²⁾ 철도부는 중공중앙(中共中央)의 위탁을 받아서 철도부의 각급 조직에 정치부를 설치한다. 정치부는 사상정치공작과 조직공작을 담당하는 부서인데, 철도부 공산당위원회는 지방 각 성(省), 시(市), 자치구(自治區)의 공산당위원회와 함께 해당 층위 철도부의 각급 조직(철로총국(鐵路總局), 철로국(鐵路局), 공정국(工程局), 설계원(設計院), 공장

22) 다음 내용을 요약: 박철현, 2015, 171~172쪽.

등에 설치된 정치부에 대해 ‘이중영도(雙重領導)’를 행사한다. 따라서 지방에 소재한 다렌기차차량장에 설치된 정치부는 중앙의 국무원 철도부 공산당위원회와 다렌시 공산당위원회의 이중영도를 받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중앙과 지방의 이중영도는 정치부의 업무영역인 사상정치공작과 조직공작에만 해당되고, ‘운수생산지휘, 물자자금분배, 설비조정, 간부안배, 직공이동’이라는 철도부 고유업무에 대해서는 국무원 철도부의 수직적 지휘체통에 따라서만 결정되고, 다렌시 공산당위원회는 어떠한 개입도 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지방소재 중앙기업은 특정한 정치적인 업무를 제외하고 기업고유의 업무영역에 관해서는 중앙정부 직속 상급조직의 지휘만을 받을 뿐이고, 해당 층위 도시정부와 공산당위원회와는 수평적 협조관계만을 유지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동북지역 전형단위제 기업이 가진 물리적 공간, 사회적 공간, 행정구역으로서의 특징은 ‘자율성(自律性)’ 문제로 귀결된다. 지방에 소재하지만 교외에 위치하며 강한 배타성과 폐쇄성을 지닌 행정구역으로서의 전형단위제 기업은 지방정부와 공산당위원회로부터 일정한 자율성을 획득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자율성의 결과 중 하나가 바로 창판대집체기업의 설립인 것이다.²³⁾ 다시 말해서, 전형단위제 기업은 해당 도시사회의 주요 구성요소이지만, 해당 도시정부와 공산당위원회로부터는 자율성을 획득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고려를 무시하고, 직속상급기관인 국무원 철도부의 허가와 지원을 받아서 지식청년과 노동자 자녀의 안정적 취업이라는 ‘정치적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창판대집체기업을 설립한 것이다. 이렇게 창판대집체기업은 동북지역 국유기업이 설립한 집체기업이며, 이들 전형단위제 국유기업과 함께 해당 도시사회의 주요 구성요소가 된다. 따라서 사회주의 시기 동북지역 도시사회를 보다 풍부하고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 전형단위제 국유기업만이 아니라 이들 국유기

23) 창판대집체기업의 설립주체는 반드시 중앙기업인 것만은 아니다. 지방기업들 중에서도 대형기업은 종종 창판대집체기업의 설립주체가 되기도 했다. 이 점 3장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업이 설립한 창판대집체기업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서론에서 지적한 개혁기 동북현상 신동북현상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기존에 분석이 집중되었던 국유기업만이 아니라 창판대집체기업도 중요한 분석대상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국유기업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복지’ 차원에서 창판대집체기업을 설립했다는 점에서, 서론에서 지적했듯이 창판대집체기업과 직결된 동북현상, 신동북현상은 단지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문제라는 점도 알 수 있다. 다음 3장에서는 주관기업과 창판대집체기업의 문제를 분석한다.

Ⅲ. 주관기업의 전형단위제와 창판대집체기업

1. 집체기업의 형성과 분류

창판대집체기업은 집체기업의 한 종류이다. 여기서는 집체기업의 형성 역사를 통해 건국 이후 중국 도시사회에서 국유기업과 구분되는 집체기업의 정치적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창판대집체기업과 기타 집체기업들과의 차이를 알아보자. 사회주의 시기 중국 기업은 그 소유주체에 따라 공유제(公有制) 기업과 비(非)공유제 기업으로 나뉘는데, 1950년대 중후반 공상업(工商業)에 대한 사회주의적 개조를 통해 비공유제 기업은 극소수를 제외하고 거의 소멸했고, 개혁기에 들어서기 전까지 사실상 공유제 기업만 존재했다. 공유제 기업은 다시 소유주체에 따라 국유기업과 집체기업으로 나뉜다. 국유기업은全民所有制(全民所有制) 기업이라고도 하는데, 원칙적으로 ‘사회구성원 전체(=전민)’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중앙 정부와 각급 지방정부가 그 소유권을 행사한다. 이와 달리 집체기업은 특정 범위의 인민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기업을 가리키는 것으로 도시(城鎮) 집체기업과 농촌(鄉村) 집체기업으로 다시 나뉜다.²⁴⁾

도시 집체기업이 첫 번째로 등장한 것은 1953~57년 제1차 5년 계획 시

기였다. 이 시기 국가는 도시의 수공업(手工業) 분야 소규모 사영기업(私營企業)에 대한 사회주의적 개조를 통해 생산, 공급, 판매 합작사(合作社)를 설립 하였고 이것이 도시 집체기업의 시초가 되었다. 두 번째 시기는 1958~78년 시기이다. 우선 1958년 대약진이 시작되면서 도시 여성들도 사회주의 건설에 참여할 것이 독려되어, 여성들이 ‘가도공장(街道工廠)’이나 생산조(生產組)를 조직하는 열풍이 불었고, 이를 통해 집체소유제 가도공장이 생겨났다.²⁵⁾ 또한 1961년에는 중공중앙이 이른바 「수공업 35조(條)」를 발표하여 기존 전 민소유제 국유기업으로 개조한 수공업 분야 기업 중 일부를 ‘수공업생산합작사(生產合作社)’ 및 ‘합작소조(合作小組)’와 같은 집체기업으로 되돌린다. 아울러 1966년에는 마오쩌둥(毛澤東)의 「57지시(指示)」로 국가기관, 학교, 군대, 공장 등은 모두 직공(職工) ‘가족(家屬)’의 취업을 위해서 ‘57가족공장(家屬廠)’을 만들게 된다.²⁶⁾ 마지막으로 1978년에는 기존 국유기업이 도시로 돌아온 지식청년과 노동자 자녀의 안정적 취업을 위해서 집체기업의 형식으로 각종 생산과 서비스 합작사를 설립한다.

이들 집체기업을 설립계기 및 목적을 기준으로 다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50년대 ‘공사합영(公私合營)’ 과정에서 만들어진 집체기업,²⁷⁾ 둘째

24) 이하 집체기업의 역사와 분류는 다음을 참고: 李曉軍, 2011, 「廠辦大集體改革的難點和對策分析」, 『國有資產管理』 9期.

25) 가도공장은 기층 행정권력인 가도판사처(街道辦事處)가 설립하고 관리하는 공장으로서 가도 주민들이 소유하는 집체기업이다.

26) 가족은 가족을 가리킨다. 「57지시」는 1966년 5월7일 마오쩌둥이 린바오(林彪)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가리키는 것으로, 마오쩌둥은 이 편지에서 군대는 ‘큰 학교(大學校)’가 되어 정치, 군사, 문화를 학습하는 한편, 생산활동도 겸할 것을 주장한다. 또 군대만이 아니라, 노동자, 농민, 학교, 간부도 모두 군대처럼 학습할 뿐만 아니라 생산활동에도 종사할 것을 명령한다. 「57지시」는 분업에 의한 사회적 차별을 폐지하고 자급자족의 공동체를 형성하려 했던 마오쩌둥의 유토피아 공산주의 사상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57가족공장’은, 「57지시」에 의해 노동자의 가족인 주부가 가정을 벗어나서 공장에서 노동할 것이 요구되자, 기존 국가기관, 학교, 군대, 기업 등이 이들 가정주부를 고용할 목적으로 설립한 집체기업이다.

27) 공사합영은 건국 초기 중국이 ‘민족자본주의’ 기업에 대해 취한 사회주의적 개조방식으로, 자본주의 기업에 대해 국가자본을 참가시킨 후 그 비중을 증가시키고 국가가 파견한 간부를 기업경영주체로 만들어서, 자본주의 기업을 점진적으로 사회주의 국유기업으로 개조하는 것을 가리킨다.

수공업합작사가 발전한 집체기업, 셋째 각종 생산, 공급, 판매 합작사를 집체기업에서 국유기업으로 개조했다가 다시 집체기업으로 개조한 경우, 넷째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각각 투자하여 만든 집체기업, 다섯째 도시주민이 노동력을 제공하여 자발적으로 설립한 집체기업, 여섯째 학교가 만든 ‘교판(校辦)’ 집체기업, 일곱째 장애인들의 안정적 취업을 위한 사회복지 성격의 집체기업, 여덟째 취업희망자나 잉여인력을 위해서 기존 국유기업이 설립한 창판대집체기업.

앞서 보았듯이 국가는 국유기업들 사이에서도 규모, 업종, 소유주체 등에 따라 차별화된 자원을 배분했다. 따라서 국가는 자원부족이나 고유성질 등의 원인으로 국유기업 형식으로는 침투하여 조직할 수 없는 도시 기층사회의 일정영역을 주민들이나 개별 국유기업이 스스로의 자원과 인원을 동원하여 집체기업의 형식으로 조직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국가는 집체기업에게는 국유기업보다는 확실히 적은 자원만을 할당하면서도 그 내부에 설치된 공산당조직을 통해서 기층사회에 대한 정치적 동원과 관리를 가능한 실현하고자 했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사회주의 시기 중국 도시가 각종 형태의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때, 집체기업과 국유기업은 일정한 상호 차별성을 지니면서도, 모두 기업단위의 형태를 통해 국가권력의 도시사회 침투와 조직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매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창판대집체기업은 이러한 집체기업 중 가장 대규모이고, 기존 중대형 국유기업이 설립한 집체기업이며, 설립목적은 지식청년과 노동자 자녀의 안정적 취업이었다. 즉 설립주체, 설립계기 및 목적, 규모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앞서 언급한 다른 형태의 집체기업들과 뚜렷이 구분되고, 무엇보다도 기존 중대형 국유기업이 설립했기 때문에 해당 도시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상당했다고 볼 수 있다.

2. 창판대집체기업과 전형단위제

1) 창판대집체기업의 형성

먼저 창판대집체기업의 설립경위에 대해서 알아보자. 1978년 12월10일 국무원은 ‘전국 지식청년 상산하향 공작회의’를 개최한 후 『전국 지식청년 상산하향 공작회의 기요(全國知識青年上山下鄉工作會議紀要)』와 『지식청년 상산하향의 약간 문제에 관한 국무원 시행규정(國務院關於知識青年上山下鄉若干問題的試行規定)』을 발표하여, 상산하향 운동의 범위를 축소하고 추가적인 도시 지식청년의 동원을 금지하며, 특히 이들 도시 지식청년의 안정적 취업을 위한 조건을 마련할 것을 각계각층에 요구한다.²⁸⁾ 구체적으로는, 정부, 국유기업, 사업단위 등에서 적극적으로 집체기업을 설립하여 도시 청년의 취업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한 것인데, 중대형 국유기업이 창판대집체기업을 설립하는 게 가장 보편적 형태였다.

또한 1980년 8월2~7일 기간에 중공중앙(中共中央)은 ‘전국노동취업공작회의(全國勞動就業工作會議)’를 개최하여, “노동부문의 취업소개, 자발적 취업, 개체호(個體戶)” 등의 방식으로 도시 실업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²⁹⁾ 하지만 “노동부문의 취업소개”를 제외한 “자발적 취업, 개체호” 방식은 곧 당시 개혁기 초기 맹아가 보이던 시장경제요소를 적극 이용하여 안정적 취업을 실현하겠다는 것인데, 시장경제요소는 아직까지 선전(深圳) 같은 일부 경제특구에서나 도입실험이 이뤄지고 있을 뿐 전국적인 차원에서 취업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했고, 아직까지 계획경제 부문이 전체경제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중공중앙의 요구는 현실적으로는 기존 계획경제 부문의 국유기업에게 도시 청년의 안정적 취업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

28) <http://politics.people.com.cn/GB/101380/10632096.html> (검색일: 2018년 5월5일)

29) 개체호는 원문에는 ‘자모직업(自謀職業) 인원’, 즉 ‘정리하고 및 실업인원과 졸업 후 직업 배분을 받지 못한 대학 졸업생으로, 공상영업허가증(工商營業執照)을 발급받고 개체경영에 종사하여 취업을 한 인원’이라고 되어있다.

<http://dangshi.people.com.cn/GB/151935/176588/176597/10556262.html> (검색일: 2018년 5월5일)

공중앙의 요구와 함께 고려해야할 점은, 전형단위제 중대형 기업은 강력한 폐쇄적 배타적 정체성으로 인해서 스스로 창판대집체기업을 만들었다는 사실이다.³⁰⁾ 다시 말해서, 동북지역에 집중된 중공업 부문 중대형 국유기업은 앞서 전형단위제에서 분석한 폐쇄성 배타성으로 인해서, 소속 노동자의 자녀나 도시로 귀환한 지식청년들과 같은 ‘가족공동체 구성원’의 안정적 취업 보장을 위해 자발적으로 창판대집체기업을 설립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1970년대 말~1980년대 초 창판대집체기업의 형성은 중공중앙의 요구에 더하여 전형단위제 기업의 ‘공동체적 특징’이 작용한 결과라고 보아할 것이다.

2) 주판기업과 창판대집체기업의 관계

이제 창판대집체기업이 그 설립주체인 주판기업과 구축한 관계의 여러 측면을 살펴보자. 이를 위해서 앞서 간단히 언급한 ‘57가속공장’과 창판대집체기업 비교하는 방식을 취한다. 왜냐하면 창판대집체기업과 ‘57가속공장’은 양자 모두 집체기업이고, 주판기업인 국유기업이 가속의 취업을 목적으로 설립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뚜렷한 차별성도 있기 때문에, 양자 비교를 통해 창판대집체기업의 특징을 보다 명확히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집체기업은 그 형성계기와 목적이 기존 국유기업과 별 관련이 없으나, ‘57가속공장’과 창판대집체기업 두 종류는 기존 국유기업이 직접 설립한 집체기업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데, 양자 사이에도 명확한 차별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양자를 비교하면 창판대집체기업의 특징을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57가속공장’에 대해서 알아보자. ‘57가속공장’은 마오쩌둥의 ‘유토피아 공산주의’ 사상이 담긴 『57지시』에 의해서 설립된 공장인데, 직업과

30) 田毅鵬 等著, 2011, 156쪽.

계층에 상관없이 자급자족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가족 중에서도 특히 ‘가정주부’를 가사노동에서 분리하여 그 노동력을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장이다. 그런데 이 공장은 대부분이 소규모이며, 그 업무분야는 국유기업의 핵심생산분야가 아니라 운수, 포장, 원료 등 생산보조이다. 또한 이 공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모집과정에서 국가 노동부문의 ‘모집절차(招工手續)’를 거치지 않았고, ‘연속근무연한(連續工齡)’도 없었다. 특히 임금과 복지에서도 정식 노동자와 큰 차이를 보여서, 임금은 성과급이 기본이며, 시간급인 경우에도 초과근무수당이 없고, 초과생산할 경우에도 보너스는 없었다. 또한 의료복지가 제공되지 않고, 복지보조금도 없고, 사직도 자유로웠다. 따라서 ‘57가속공장’은 당시 국유기업 체계에서 매우 주변적인 존재였다고 할 수 있다.³¹⁾

이상과 같이 1960년대, 1970년대 주변적 기업으로서 설립된 ‘57가속공장’이 주로 주민인 가정주부들이 거주하는 가도에 위치한 ‘가도공장’의 형태를 취한 것과 비교해서, 창판대집체기업은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가진다.

첫째, ‘57가속공장’이 『57지시』라는 유토피아 공산주의 사상의 실현이 설립목적이라면, 창판대집체기업은 도시로 귀환한 지식청년과 노동자 자녀의 안정적 취업이 설립목적이다. 즉 ‘57가속공장’이 ‘사회적 분업의 폐지’와 ‘공산주의적 인간형의 창출’을 위해서 각계각층이 자신의 직업과 상관없이 생산노동에 종사해야 한다는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목적’에 의해서 설립되었다면, 창판대집체기업은 경제적 효율을 고려하지 않고 국유기업 노동자 가족의 절박한 취업문제를 해결한다는 ‘정치적 사회적 목적’에서 설립되었다는 일정한 차별성을 가진다.

둘째, 업무분야 측면에서, ‘57가속공장’의 주요 업무가 국유기업의 핵심생산분야와는 상관없는 ‘운수, 포장, 원료’라는 보조적 분야인데 비해서, 창판대집체기업은 국유기업 핵심생산분야의 일부분을 담당하였다. 예를 들어

31)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 陶宇 王玥, 2016, 『“家屬工”: 集体記憶中的制度變遷與身份實踐 - 以Q市H廠為例』, 『福建論壇 人文社會科學版』2期.

1980년 4월28일 설립된 라오닝성(遼寧省) 안산시(鞍山市) 석유화학공업국(石油化學工業局) 산하의 ‘노동복무공사(勞動服務公司)’는 창판대집체기업 7개를 설립하여 1438명을 고용한다.³²⁾ 이 창판대집체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안산시 국유기업들은 간부를 파견하여 창판대집체기업의 지도부를 담당하게 하고, 자금, 원료, 설비, 부지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기존 공장의 숙련노동자를 선발하여 막 취업한 지식청년과 노동자 자녀들에게 기술지도를 시행하기까지 한다.³³⁾ 또한 다렌기차차량창도 1979년 2월 도시로 돌아온 지식청년의 취업을 위해서 공장을 만들어서 1413명을 취업시키고, 1982년 10월에는 건물수리회사를 만들고 기존 작업장들과 주요 부서들에서 노동자를 차출하여 건물수리회사의 주요직책을 담당하게 하고 그 자녀들을 고용했다. 이후에도 쌍싱실업공사(雙興實業公司)와 전자부품공장(電子器件廠)을 설립해서 노동자 자녀들의 취업문제를 해결했다.³⁴⁾ 이렇게 국유기업은 창판대집체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기존 핵심생산분야의 일부를 배정하고 자금, 기술, 인력, 행정 등 전방위적 지원을 하였다.

셋째, 설립주체 측면에서, ‘57가속공장’과 창판대집체기업 모두 국유기업이 그 설립주체이지만, 창판대집체기업의 설립주체는 국유기업 중 중앙기업이 상당부분 포함되어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중앙기업은 업종, 규모, 국무원 직속계통, 동원 가능한 자원 등 모든 측면에서 일반적인 국유기업과는

32) 1978년 9월 이후 공산당의 요구에 의해서 각 도시에 설립되기 시작한 노동복무공사는 기업의 잉여인력의 취업을 목적으로, 노동력 관리행정과 경영관리 기능을 갖추고 있는 사회경제 조직이다. 성(省), 시(市), 구(區), 현(縣) 등 지방정부가 설립한 노동복무공사는 사업단위(事業單位)이며, 국유기업 및 사업단위가 설립한 노동복무공사는 집체기업으로 분류된다. 관방자료에 따르면, 노동복무공사의 구체적인 설립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효율과 경제적 효율을 모두 증시하면서 취업을 확대한다. 둘째, 취업공작과 노동제도개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노동력의 사회적 조절과 경제적 취업을 위한 사회적 조건을 창출한다. 셋째, 노동생산기지와 취업훈련기지 건설을 강화한다. 넷째, 각급 지도부의 지지를 획득하고, 사회 각 방면의 역량을 동원하여, 노동취업공작을 함께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 張左己, 1989, 『勞動服務公司的十年回顧和展望』, 『中國勞動科學』 5期.

33) 다음에서 재인용: 田毅鵬 等著, 2011, 81~82쪽.

34) 박철현, 2015, 169쪽 및 다음을 참고: 大連機車車輛工廠廠志編纂委員會, 1993, 『鐵道部大連機車車輛工廠志(1899-1987)』, 大連出版社, 153~155쪽.

차원이 다르다. 예를 들어 앞서 보았던 상싱실업공사와 전자부품공장을 설립한 다론헬기차차량장은 국무원 철도부에 직속된 중앙기업이다. 또한 동북지역의 대표적인 중앙기업인 ‘창춘 제1자동차회사(長春一汽, 이하 ‘창춘일기’로 약칭)’는 1979년 당시 소속 노동자의 ‘가속’으로서 취업희망 지식청년이 2천명이 넘었고, 이보다 앞서 도시로 돌아온 지식청년도 수천 명에 달했으며, 일자리가 필요한 인원이 매년 2천명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³⁵⁾ 이에 ‘창춘일기’는 노동복무공사 17개, 서비스망 4개, 지식청년 공장 4개를 설립하여 6천여 명의 지식청년의 취업문제를 해결했다. 사실 이때 설립된 창판대집체기업은 ‘창춘일기’ 업무의 보조적 역할에 머물렀으나, 1982년부터는 창판대집체기업이 주관기업인 ‘창판대집체기업’의 종합발전계획에 포함되어 본격적인 발전을 시작했고, 1986년에는 창판대집체기업 전체 숫자가 162개로 증가한다. 1987년 이후에는 ‘창춘일기’와 창판대집체기업은 역할 분담을 통해 공동발전을 모색하게 되고, 1998년 창판대집체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3만6천명에 달했다.

이렇게 일부 중앙기업이 설립한 창판대집체기업 중에는 주관기업의 단순한 보조적 역할이 아니라 역할분담을 통해 주관기업과 일정한 분업관계까지 구축한 경우도 있다.

넷째, 복지측면에서 볼 때, 이데올로기적 동기에 의해서 ‘57가속공장’이 주로 기존 소속 노동자 가정의 주부를 ‘잡무’에 배치하고 매우 열악한 복지를 제공한 것에 비해서, 국유기업 특히 중앙기업이 설립한 창판대집체기업은 그 고용인원이 대부분 기존 주관기업 노동자의 ‘자녀’인 관계로 ‘57가속공장’의 여성노동자보다 우월한 복지를 제공받았다. 1983년 ‘창춘일기’는 창판대집체기업 노동자를 위한 주택과 탁아소를 건설했고, 집체기업 ‘직공증(職工證)’을 발급하여 소속 노동자가 의료, 이발, 세탁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도왔다. 주변화된 ‘57가속공장’ 노동자의 복지와는 달리, 특히 중앙

35) 이상 ‘창춘일기’ 관련 구체적인 통계와 주요 내용은 다음을 참고: 田毅鵬 等著, 2011, 157~158쪽.

기업이 설립한 창판대집체기업 노동자의 복지는 주판기업 노동자의 복지와 동일한 수준일 수는 없지만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제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여러 측면에서 ‘57가속공장’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창판대 집체기업의 이러한 특징은 기본적으로 주판기업인 국유기업의 전형단위제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국유기업의 전형단위제가 창판대집체기업의 이러한 특징을 낳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창판대집체기업의 단위로서의 성격은 국유기업의 그것을 전면 복제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³⁶⁾ 특히 동북지역 중앙기업이 설립한 창판대집체기업에서 이러한 점은 두드러진다. 결국 창판대집체기업의 문제는 곧 중앙기업의 문제이고, 이것은 서론에서 언급한 2005년 국무원 발표와 국무원발전연구중심의 발표에서 분석하고 있듯이 동북지역의 문제이다. 다음에서는 창판대집체기업의 ‘문제점’을 동북지역 전형단위제 기업의 사례를 통해서 분석하도록 하자.

3) 중앙기업과 창판대집체기업

창판대집체기업은 국유기업과의 ‘가족공동체적 관계’로 인해서 종종 ‘제2 국영기업(第二國營)’이라고 불렸다.³⁷⁾ 이것은 창판대집체기업이 국유기업 소속 노동자의 자녀들이 취업해있고, 국유기업의 전방위적 지원에 의해서 설립되고 운영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현이다. “전형단위제에 기초한 사회현상으로서의 창판대집체기업”의 각종 문제점은 중공업 부문 중대형 중앙기업이 밀집된 동북지역에서 다음과 같이 집중적으로 표출된다.³⁸⁾

첫째, 창판대집체기업은 생산과 경영에서 국유기업에 전면적으로 의존하여 시장경쟁력이 매우 약화되었다. 설립초기에 국유기업은 창판대집체기업에 각종 정치적 행정적 인적 물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각종 문서비준

36) 田毅鵬 等著, 2011, 158쪽.

37) 사회주의 시기는 국영기업(國營企業)이라고 불렸고, 개혁기에는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소유권 구조도 다원화되기 때문에 국유기업이라고 불리는데, 본 연구에서는 사회주의 시기와 개혁기를 구분하지 않고 편의상 국유기업이라고 통칭한다.

38) 田毅鵬 等著, 2011, 94쪽.

과 초기자금 제공은 물론 작업장, 토지, 설비, 전기, 가스, 수도 등을 무상 제공하고, 원료를 제공하여 생산임무를 배정하였으며, 국유기업의 노동자를 창판대집체기업 작업장에 파견하거나 반대로 창판대집체기업의 노동자를 국유기업 작업장에 파견하여 기술을 전수했고, 창판대집체기업에 용자를 해주거나 용자를 위한 담보를 제공하였으며, 창판대집체기업을 지도할 경영층과 당조직을 조직해주었다.³⁹⁾ 심지어 국유기업이 창판대집체기업 노동자의 임금, 복지, 보너스 비용까지 부담한 경우도 있다.⁴⁰⁾

둘째, 기업관리기제 및 노동기율에서도 창판대집체기업은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었는데, 이 중 대표적인 것이 ‘무자격 근무(混崗)’이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국유기업과 창판대집체기업이 기술전수와 신속한 발전을 위해서 노동자를 상호 교환근무하게 하는 관례가 변질된 것으로, ‘지식청년공장(知青廠)’의 청년 노동자가 국유기업의 정식 노동자와 동일 작업장에서 동일 업무를 보게 되는 현상이다. 당시 한 조사에 따르면 ‘창춘일기’는 1979년 이후 6,523명의 지식청년을 취업시켰고 그 중 압도적인 다수는 ‘지식청년공장’에 배당되었는데, 그들 중 기술을 갖추지 못한 약 6백 명의 지식청년이 ‘창춘일기’ 작업장 노동자들 사이에 뒤섞여 업무를 보는 ‘무자격 근무’ 현상이 만연하여, 노동기율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들 ‘무자격 근무’ 지식청년은 “출근 시간에만 자리를 지키고 중간에는 자리에 없다가 퇴근할 무렵이 되어 잠시 돌아다니다가 퇴근하는” 현상이 빈번하여, 집체기업이 국유기업을 “잠식(蠶食)”하고 있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⁴¹⁾

셋째, 지역에 따른 발전격차가 크다. 동일한 창판대집체기업이라고 해도 시장화 개혁이 심화되자, 동남연해지역의 창판대집체기업은 소유권 개혁과 산업구조조정으로 사영기업으로 변신하는 데 성공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특히 동북지역의 창판대집체기업은 주판기업인 국유기업의 문제점으로 인해

39) 李曉軍, 2011.

40) 葛濤 主編, 1989, 『稅收財務大檢查工作內參』, 陝西人民出版社, 300~301쪽.

41) 中共中央書記處研究室理論組 中華全國總工會辦公廳 編, 1983, 『當前我國工人階級狀況調查資料匯編』, 中共中央黨校出版社, 54~55쪽.

서 생산, 수익, 노동자 복지 등 모든 측면에서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다.⁴²⁾

넷째, 본질적인 문제는 ‘모호한 소유권’이다. 앞서 집체기업의 역사와 분류에서 지적했듯이, 창판대집체기업은 다른 집체기업들과 달리 기존 국유기업이 설립주체이다. 따라서 “특정 범위의 노동대중집체가 소유하고, 공동노동을 실행하여, 노동에 따른 분배를 위주로 하는 경제조직”이라는 「중화인민공화국 성진 집체소유제기업 조례(中華人民共和國城鎮集體所有制企業條例)」의 정의에 비추어보면, 창판대집체기업은 집체기업이라고 하기에 곤란한 측면이 있다.⁴³⁾ 창판대집체기업은 ‘전민소유제’인 국유기업에서 파생된 것이므로, 그 자산출처는 기본적으로 주판기업인 국유기업의 ‘행정배정(劃撥)’이다.⁴⁴⁾ 또한 다른 집체기업의 자산증가는 오로지 스스로의 축적에 기초하지만, 창판대집체기업은 국유기업의 생산과 생활서비스에 기초하고, 생산품 구조도 국유기업의 핵심생산분야와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 다른 집체기업은 사회와 시장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산에 필요한 원료와 에너지도 시장을 통해서 공급받지만, 창판대집체기업은 사회와 시장이 아닌 국유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며 원료와 에너지도 시장이 아니라 국유기업을 통해서 공급받는 것이 기본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전형단위제 기업의 물리적 공간의 특징에 기초하여 소속 노동자들 사이에는 기업 외부와는 확실히 구분되는 가족공동체와 같은 정체성이 형성되었고, 이러한 가족공동체 정체성이 노동자 자녀들이 취업한 창판대집체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무상 지원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2) 單人 藍國青 田超, 2015, 「央企廠辦大集體改革實施路徑」, 『中央電力企業管理』 8期, 50쪽.

43) http://www.gov.cn/gongbao/content/2016/content_5139594.htm (검색일: 2018년 5월5일)

44) 이하 다음 내용을 요약: 田毅鵬 等著, 2011, 87쪽.

IV. 결론

본 연구는 창판대집체기업의 형성과 주판기업인 국유기업과의 관계를 동북지역 전형단위제 기업의 특징이라는 시각에서 분석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북지역은 건국 이전에 갖춰진 공업화 기초 위에 건국 이후의 집중적 투자를 통해서 중국 최대의 중공업 기지로 발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전국 평균을 2배 이상 상회하는 도시화율을 사회주의 시기 내내 기록했으며, 이러한 높은 수준의 중공업화와 도시화는 동북지역 특유의 ‘전형단위제’ 형성의 조건이었다.

둘째, 창판대집체기업은 집체기업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다른 집체기업과 달리 국유기업이 설립한 집체기업이기 때문에, 그 형성, 운영, 생산, 노동자 복지 등의 측면에서 국유기업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57가속공장’과 창판대집체기업 모두 국유기업이 설립 주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설립목적, 업무분야, 규모, 노동자 복지 등의 측면에서 뚜렷한 차별성을 보인다.

셋째, 창판대집체기업의 형성, 창판대집체기업과 국유기업과의 관계 등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는 기본적으로 배타적 폐쇄적 사회공간으로서의 전형단위제 기업의 특징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며, 중공업 부문 중대형 중앙기업이 밀집된 동북 도시사회에서 이러한 창판대집체기업의 문제는 더욱 중요한 정치적 사회적 의미를 가진다.

다시 말해서 ‘가족공동체’적 성격이 강한 전형단위제 중앙기업은 물질적 자원과 인적 행정적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소속 노동자의 자녀와 지식청년의 안정적 취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창판대집체기업을 설립했기 때문에, 동북 도시사회에서 창판대집체기업의 문제는 경제적이면서 동시에 정치적 사회적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따라서 창판대집체기업은 국유기업과 함께 사회주의 시기 동북지역 도시사회의 주요 구성요소로서 규정되어야 하고, 이

를 통해서 당시 도시사회를 좀 더 풍부하고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개혁기 동북현상, 신동북현상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동북지역 도시사회의 문제를 분석할 때도 창판대집체기업의 문제는 반드시 기존 국유기업의 문제와 관련시켜서 분석해야 한다.

한편 국가권력의 사회 침투와 조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창판대집체기업은 1970년대 말~1980년대 초 사회주의에서 포스트사회주의로의 이행기에 국가권력이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기층사회 영역-노동자 자녀와 도시로 귀환한 지식청년-을 국유기업이 아닌 다른 형식을 통해 일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앞서 2장 2절에서 창판대집체기업 설립을 지방소재 전형단위제 중앙기업의 ‘자율성’의 문제로 인식했는데, 여기서 이 부분을 좀 더 논의해보자. 경제학자 배리 노튼(Barry Naughton)에 따르면, 사회주의 시기 중국은 ‘실패한 분권화(failed decentralization)’로 중앙정부의 계획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배리 노튼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생산을 위한 물자배분 시스템에 있어서 지방기업은 지방정부 통제 하에 있었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지방정부의 생산에 필요한 물자공급 계획을 책임지나, 중대형 중앙기업들의 경우 지방정부 관할 구역에 위치해도 이들 기업에 대해서 지방정부는 행정적 역량을 보유하지 못했다. 문제는 1970년 이후 2천개의 중대형 중앙기업이 지방정부 통제로 바뀌지만, 이들이 필요한 물자공급은 여전히 중앙정부의 해당부처로부터 이뤄지는 상황이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실패한 분권화’의 결과, 기업 수준에 보면 기업이 여러 층위의 정부에 동시에 종속되는 혼란이 발생했다. 예를 들어 물자의 공급과 투자에 대한 통제는 상급 정부에서 이뤄지고, 인원과 관리는 그보다 하급 정부에서 이뤄졌다. 어떤 기업도 특정 층위의 단일한 정부에 의해서 통제가 이뤄진 적이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 서로 상충될 수도 있는 지령을 내리는 서로 다른 층위의 정부들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고, 이는 소련에서 볼 수 없었던 현상이었다.”⁴⁵⁾

요약하면, 사회주의 시기 중앙기업의 소속이 중앙과 지방의 다양한 층위로 계속해서 바뀌는 상황에서, 물자공급과 투자는 상급정부(또는 중앙정부)에서 이뤄지고, 인원과 관리는 그보다 하급정부에서 이뤄질 경우, 생산을 위한 물자배분 시스템의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그런데 필자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실패한 분권화’는 물자공급 및 투자의 주체와 인원 및 관리의 주체의 불일치로 인한 혼란만이 아니라, 해당 기업에게 의도하지 않은 ‘자율성’을 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사회주의 시기 ‘실패한 분권화’로 지방소재 중앙기업은 사실상 어느 층위의 정부에게도 확실하게 소속되지 않게 되고, 결과적으로 해당 기업은 지방정부로부터 ‘자율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창판대집체기업의 설립은 국유기업의 이러한 의도되지 않은 ‘자율성’에 의해 가능했다는 것이다.

45) Barry Naughton, 1995, *Growing Out Of the Plan : Chinese Economic Reform, 1978-1993*,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47~48.

참고문헌

1. 사료

- 葛濤 主編, 1989, 『稅收財務大檢查工作內參』, 陝西人民出版社, 300~301쪽
大連機車車輛工廠志編纂委員會, 1993, 『鐵道部大連機車車輛工廠志(1899-1987)』, 大連出版社, 153~155쪽
中共中央書記處研究室理論組 中華全國總工會辦公廳 編, 1983, 『當前我國工人階級狀況調查資料匯編』, 中共中央黨校出版社

2. 한국어문헌

- 박철현, 2014, 「중국 사구모델의 비교분석: 상하이와 선양의 사례 - 사회정치적 조건과 국가 기획을 중심으로」, 『중국학연구』 69
_____, 2015, 「사회주의 시기 중국 동북지역의 국가와 기업: 대런기차차량창의 전형단위제를 중심으로」, 『만주연구』 20
_____, 2015, 「중국 개혁기 사회관리체제 구축과 지방정부의 역할 변화: 1990년대 상하이 푸둥개발의 공간생산과 지식」, 『공간과사회』 52(2)
박철현, 2016, 「중국 동북지역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 ‘노후공업도시」, 『역사비평』 116
배리 노턴 저, 이정구·전용복 역, 2010, 『중국경제: 시장으로의 이행과 성장』, 서울경제경영

3. 외국어 문헌

- 姜妮伶, 2009, 「東北地區城市化問題研究」, 『東北財經大學學報』 3期
顧洪章 主編, 2006, 『中國知識青年上山下鄉大事記』, 人民日報出版社
單人 藍國青 田超, 2015, 「央企廠辦大集體改革實施路徑」, 『中央電力企業管理』 8期
陶宇 王玥, 2016, 「“家屬工”: 集體記憶中的制度變遷與身份實踐 - 以Q市H廠為例」, 『福建論壇·人文社會科學版』 2期
董志凱 吳江, 2004, 「新中國工業的奠基石: “156項”建設研究」, 廣東經濟出版社
路遇 編, 2016, 『新中國人口五十年 上』, 中國社會科學出版社
路風, 2003, 「中國單位體制的起源和形成」, 中國社會科學院社會學研究所編, 『中國社會學』 第2卷, 上海人民出版社
尙純穎, 2012, 「廠辦大集體困境及發展出路」, 『現代商業』 18期
徐雪梅, 2008, 『老工業基地改造中的社區建設研究: 以遼寧爲個案』, 中國社會科學出版社
徐永前 主編, 2011, 『廠辦大集體改革100問』, 法律出版社
顏休嘉, 2013, 「廠辦大集體改革背景下集體企業發展戰略分析: 以電網公司爲例」, 『中國集

體經濟』18期

- 于瀟, 2006, 「建國以來東北地區人口遷移與區域經濟發展分析」, 『人口學刊』 3期
- 李翔, 2009, 『共和國記憶60年: 成長地標』, 中信出版社
- 李瑞慶 藍國青, 2016, 「廠辦大集體改革創新實踐」, 『中國電力企業管理』 10期
- 李曉軍, 2011, 「廠辦大集體改革的難點和對策分析」, 『國有資產管理』 9期
- 李輝 王秀艷, 2009, 「國有廠辦大集體改制面臨的法律問題及對策」, 『黑龍江教育學院學報』 10期
- 田毅鵬 漆思, 2005, 『“單位社會”的終結: 東北老工業基地“典型單位制”背景下的社區建設』, 社會科學文獻出版社
- 田毅鵬 等著, 2011, 『“單位共同體”的變遷與城市社區建設』, 中央編譯出版社
- 張雁飛, 2013, 「關於電網企業廠辦大集體改革的路徑探討」, 『中國集體經濟』 4期
- Barry Naughton, 1995, *Growing Out Of the Plan : Chinese Economic Reform, 1978-1993*, Cambridge University Press

4. 웹사이트

- http://www.gov.cn/gongbao/content/2016/content_5139594.htm (검색일: 2018년 5월5일)
- <http://dangshi.people.com.cn/GB/151935/176588/176597/10556262.html> (검색일: 2018년 5월5일)
- <http://www.drc.gov.cn/xscg/20160921/182-473-2891681.htm> (검색일: 2018년 5월3일)

투고일 : 2018년 5월 15일, 심사완료일 : 2018년 6월 10일, 게재확정일 : 2018년 6월 10일

■ Abstract ■

Typical Danwei System and Subsidiary Collective Enterprises in Northeast China

Park, Chulhyun(Kookmin University)

This paper tries to clarify the political and social meaning of the Subsidiary Collective Enterprises, which were major components of the urban society in Northeast China of the socialist era. It does this through an analysis the shaping of Subsidiary Collective Enterprises (SCEs) and its relation to State Owned Enterprises (SOEs). With the ‘156 KEY PROJECTS’ and intensive heavy-industry investment, the Northeast region—which has industrial foundations dating from the Manchukuo period—became the heavy-industry base which represented socialist China. This high urbanization, which always exceeded twice the national urbanization level, serves as an important factor in the shaping of Typical Danwei System (TDS) in Northeast region. Unlike the normal Collective Enterprises, SCEs were established by existing SOEs and the purpose of its establishment was to guarantee that children and educated youth workers who had returned to the city would have stable employment. As such, the shaping of SCEs and its relationship with SOEs are similar in character to that of SOEs with TDS. In particular, SCEs which were established by the Central Enterprises in Northeast region illustrate the political and social significance of SOEs in Northeast region. This analysis on the SCEs provides a rich and multifaceted understanding of the urban society of Northeast region in the socialist era, as well as on a Northeast phenomenon and on a new Northeast phenomenon.

Key words : Subsidiary Collective Enterprises, State Owned Enterprises, Collective Enterprises, Typical Danwei System, Northeast region, urban society